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10월 5일 ( 제 1326 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 추석

추석(秋夕)은 우리나라의 2대 명절이다.
나는 명절이면 늘 같은 메시지를 낸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귀가 따가워도 어쩔 수 없다.
주 골자는 '제사 지내지 말라!'이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고전10:20~21) 하셨으니 낸들 어쩌랴.
심지어 그런 자에게 경고의 말씀도 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
삼사 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천대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나는 과감히 후자(後者)를 택했다. 장손으로서 제사상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두드렸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후폭풍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집에서 쫓겨났고, 어머니와 원수가 되었다. 무려 13년 동안.
그러나 지금 어떤가. 어머니도 권사 직분을 받고 천국에 가셨고, 두 동생이 목사가 되고, 여동생은 전도사가 되고, 아들과 조카, 조카사위까지 주의 종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불효(不孝), 불충(不忠)의 종교라고 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다.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고 하시며 효를 강조하셨다. 단,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하신다.
이번 추석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길 바란다.

#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긴 추석 명절로 인해 교회신문이 미리 제작되는 관계로 군산 월명체육관 전도집회의 실제 상황을 전달하지 못해 몹시 아쉽지만, 양해 바랍니다.
군산 전도집회를 배설한 김축복 목사님은 정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불을 붙인 분은 따로 있었지요. 작년 6월 현충일에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이틀간 총회장 목사님의 전주 전도집회를 주관했던 전주예수중심교회 담임 박청직 목사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 작품이라 여기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의 시도가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 박청직 목사님은 해마다 대구에서 전도집회를 배설하시던 한송이 목사님의 모습에서 큰 도전과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시도했기에 경험하고, 노하우를 쌓고, 다시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말, 사전답사 차 군산을 방문했었습니다. 전라 지역노회 목사님들은 며칠 후에 모이기로 하셨다는군요. 군산에 도착하니 박청직 목사님이 먼저 보였고, 김축복 목사님과 영동교회 이요셉 목사님이 와계셨습니다. 박청직 목사님으로서야 군산집회를 추동한 입장이라 당연히 최선을 다해 돕고 계셨고, 이요셉 목사님은 동지의식으로 먼 거리를 달려와 집회 홍보 및 전도에 힘을 보태고 계셨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5천여 명이 들어가는 큰 집회장소를 빌려 전도집회를 배설해 놓았으니 얼마나 애통하는 기도와 노력이 수반되고 있겠습니까? 주관자로서야 당연히 치러야 할 몫이지요. 그러나 교단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무엇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로 밀고 계시니 두려움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축복 목사님은 시에서 절대 종교행사는 허락할 수 없다던 완강한 자세를 접고 이번 전도집회를 허락한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크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8, 90년대 전국의 체육관, 시민회관, 운동장 등을 빌려 전도집회를 개최하던 시절과는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종교행사라 하면 일단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하나로 이런 대집회를 계획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도했기에 맛보는 경험이지요.
목사님 말씀처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고 행동하고 부딪쳐볼 때, 실패했을 때는 실패한 대로, 성공했을 때는 또 그대로 오직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참된 성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 오직 경험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결코 자전거를 배울 수 없습니다. 스케이팅을 배울 수 없습니다. 물먹는 것이 두려운 사람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지요. 무엇인가 성취하려면 당연히 시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인생사 지극히 당연한, 피할 수 없는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백그라운드인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적극 밀어주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적극 시도하세요. 목사님이 고령의 연세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부지런히 두드리고 찾고 구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1:22).
부디 이번 군산 월명체육관 집회가, 한송이 목사님이 박청직 목사님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박청직 목사님의 시도가 김축복 목사님에게 마찬가지로 도전과 영감을 주고, 믿음의 시도를 하게 한 것처럼, 우리 교단의 주의 종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도전과 영감을 주어 전국적으로 전도의 바람, 부흥의 바람으로 확산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바람을 일으켜봅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추계산상집회
* 날짜 : 2025년 11월 3일(월)~6일(목)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문의 : 02. 533. 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하 2:1~14)

# 꿈같은 얘기를 하는 자들이 꿈같은 일을 해냈다

"목사님, 이제 철산예수중심교회를 한국예루살렘교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목회 초,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신 목사님께 보고 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이 목사, 무슨 한국예루살렘이야? 그냥 철산이라고 해." 저는 당연히 "아이구, 잘했네. 암! 꿈은 크게 가져야지."라며 격려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이 목사, 꿈 깨. 무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긴 광명의 건물 지하에서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한 제가 거창하게 한국예루살렘으로 교회 명칭을 바꾼다고 하니 꿈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잡고 한국예루살렘으로 개칭하였고, 남들이 들으면 망상이라고 할 '세계교구'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결국 꿈같은 일을 해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스승 엘리야를 좇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열두 겨리나 되는 소를 놓고 엘리야를 좇았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엘리야는 자꾸 밀쳐냈습니다. 그 까닭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엘리야는 길갈에서, 벧엘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사에게 계속 '가라, 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 맹세까지 하며 필사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하도 끈질기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제야 속내를 밝힙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왕하2:9).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된 자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왕하2:10). 이 말인즉슨 꿈같은 이야기긴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를 본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며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사가 목적한 바대로 엘리야의 후계자는 되었음을, 또한 갑절의 능력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를 좇은 사람은 엘리사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외에도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그만두라', '꿈 깨라. 감히 어찌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냐'고 만류하고, 회유하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기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 주위 사람들은 그걸 망상이니, 헛꿈이니 하며 막는단 말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요셉이 꿈을 연거푸 꾸었습니다. 곡식을 묶은 형제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형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창37:8), "놀고 있네, 꿈 깨라~."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고 꾀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창37:20). '어디 그 꿈이 이뤄지나 보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형제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현실이 됨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다 꿈같은 이야기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일,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 그러나 이 꿈같은 이야기를 믿는 자들이 그 꿈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업 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조선업만큼은 대한민국이 으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바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에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다들 헛꿈이라고 했습니다. 자본이 있나, 기술이 있나, 누가 봐도 그건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 회장은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은 영국 선박 컨설턴트 기업인 A&P 애플도어사의 롱바톰 회장에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새겨진 500원짜리 지폐를 내놓으며, "당신네 영국의 조선(造船) 역사가 1800년대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쳤소. 단지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 우리는 조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소."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쳐대니 롱바톰 회장이 그의 담대함에 탄복하여 은행에 추천서를 써주었고, 그것으로 차관을 들여와 조선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아브람에게 나타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18:10)고 하자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나도 늙었고, 남편도 늙어 99세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무슨 자식~ 꿈같은 이야기도 하시네.'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18:14).

맞습니다. 꿈같은 이야기가 꿈같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응원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이거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였으나 마리아가 수용하여 '아멘' 한 것은, 바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1:37)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히11:1)? 남들이 '꿈 깨라~' 할 정도로 바랄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뤄집니다.

제가 샘플입니다. 저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14:12),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교단도 가족도 '저러니 이단이네~, 네가 예수님이냐?' 하며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더욱 기도하여 마침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 꿈도, 믿음도 당신을 버린 적이 없다

자고로 비행기가 크면 저항도 더 크게 받는 법입니다. 그 저항이 무서워 격납고 안에만 있을 겁니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히10:39). 저항보다 세게 달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비웃던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선천적 소경 바디매오가 눈 뜨고 싶어 예수를 향해 소리 지를 때 주위 사람들이 '꿈 깨~'라고 했으나 그는 믿음으로 나가 결국 눈을 떴습니다. 오만방자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를 향해 다들 '그 사람이? 꿈 깨~'라고 했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제 그만해라~' 했지만, 결국 그들은 꿈같은 이야기를 이뤄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꼭 이뤄주십니다. 꿈도, 믿음도 결코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하나님 일하는 자 방해 말고 박수를 보내자

직장에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난 체한다고 비아냥대거나 그러지 말라고 방해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못마땅해서 왕따를 시키거나 집단 폭행하는 학생들도 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하거나 본받으려 하지 않고 비방하려 할까? 그래서 세상엔 성공자들이 적은가 보다.

하나님 일도 동일하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하거나 박수를 보내거나 적극적으로 돕기 보다는 대체로 잘난 척한다며 은근히 비방하거나 방해하려 한다.

요한삼서 1장 9절로 12절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일 잘하고 있는 남도 깎아내리고 방해하고 급기야 쫓아내버린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에 대해 '그는 교회의 일꾼 같으나 하나님을 뵈옵지 못한 자요, 악한 자'라고 책망하셨다.

어느 날 성도 가정에 심방을 갔는데, 그 성도가 자신이 아는 성도님이 목사님을 잘 섬기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임을 알고 자기가 이제 그만하라고 금지시켰다며, '제가 잘했지요?'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다. 나는 성경을 펴서 몇 군데 읽어주면서 앞으로는 금하지 말고 성도님도 따라 하시라고 권면해드렸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귀한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나무라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오히려 나무라시며,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두어라.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전파되리라.' 고 칭찬하셨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한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박수를 보내고 깊이 감사했어야 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2절에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는데, 유대의 귀족과 지도자들이 도울 생각은커녕 산발랏과 도비야의 사주를 받아 방해하여 백성들이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엄히 경고하는 모습이 나온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9절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하셨는데, 왜 요즘 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들은 귀신을 추방하거나 방언을 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순종하여 능력 행하는 주의 종들을 헐뜯고 심지어 교단에서 추방하기까지 하는 걸까?

하나님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어쩔 수 없이 못할 형편이라면 그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딴지 걸지 말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감사하고, 기도로 돕는 자가 되자.

**이시대 목사**

:: 오늘의 메시지 ::

# 영의 삶을 살자

어느 날 꿈속에서 총회장님과 이시대 목사님이 기도원을 거닐고 계신다. 그때 총회장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육신으로 일하지 말고 영으로 일해라!"

맞다. 천국의 비밀은 육신을 갖고 있으나 영으로 살고, 영으로 일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엡6:12).

총회장님은 해외집회를 나가시면서 이것이 육신의 일이면 천억을 주어도 안 가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물질을 아끼지 않으시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며 복음 증거를 통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사명으로 알기에 가신다고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요6:63) 말하며,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요6:27)고 강조하신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롬8:5~6)이라고 증거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을지 모르나 육신의 삶만을 추구하다가 생을 마쳤기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음부에 갔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이 땅의 삶이 여의치 않았으나 영의 소망을 놓지 않았기에 그의 끝이 낙원이었다고 기록한다.

이제 결단하라. 나는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삶을 추구할 건지,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의 삶을 추구할 건지.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범사의 형통함도, 육신의 강건함도 있다(요삼1:2).

**김상욱 목사**

:: 성경에세이 ::

# 비교

여보게!

살다보면 알게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비교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안 그런가?

비교가 무엇인가?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을 말하지 않는가. 고로 비교란 절대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

비교가 나쁜 것은 비교당할 때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이야. 비교는 파괴가 아니야. 되레 비교는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사 상품이 해외에서 천대받는 사실을 알고는 세계 브랜드를 다 사들여서 분석하고 비교했다지 않은가. 비교한 결과, 자신들의 상품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냈고, 그 후로 더 투자하고 더 연구하여 마침내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냈지 않은가?

그러나 못난 사람들이나 못난 기업은 비교해보고 좌절하거나 괜한 말로 험담이나 하지. 그들에게는 비교가 좌절 촉진제요, 비평 촉진제가 된 게야. 사울이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다윗과 비교당하자 예전의 모습을 잃고 좌절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일세.

여보게!

나도 비교된 경우가 있었네. 목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했다네. 나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됐지. 나는 그걸 에너지 삼았다네. 나는 그때부터 청계산에 올라 '하나님, 나도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했지. 요즘은 걸걸한 목소리로 부르는 내 찬양에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네. 내가 비교하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네.

비교해보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면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게 되지. '아~ 저래서 잘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겠구나.' 생각하면 비교는 발전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네. 무엇이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비교가 기분 나쁘고 좌절을 의미하지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면 비교 당할 때 자극을 받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우리가 도전받고 자극받아 더욱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처럼!

비교당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게나.

**붕우**

:: 소망의 언덕 ::

# 지금 또 전합시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무려 16년 전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가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 만이냐? 지금은 몇 살이 되었니?"

"저 이제 서른하나예요, 전도사님."

그 친구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전도사님'이라 부르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뵙고 싶다며 약속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토요일에 교회 교육관에서 만나자고 시간을 정해주었고, 오랜만의 재회를 기대하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핸드폰으로 누나가 보낸 카카오 메시지에는 부고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남을 기다렸던 그 친구가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어려워진 가정을 돕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비가 내리던 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마음 한 켠에 깊은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더 빨리 만나자고 했더라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면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자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 마음에는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 아버지와 동생에게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수없이 전해도 닿지 않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로 그 주일, 제 아버지와 동생이 오랜만에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전하고, 또다시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현승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우리가 곧 성경입니다

최근 불신자인 지인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 젊은 그리스도인 가장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나이가 아직 젊고 그 자녀들도 어린 만큼, 장례식장이 무겁고 침울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가족들은 세상을 초월한 듯 숙연하면서도 밝고 침착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지 그분의 말에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들은 성경을 찾아 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유일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유일하게 읽는 성경은 바로 당신의 삶이다."

성경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단3:28)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목격한 후,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 선포했습니다(단6:26).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자 보디발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보았고(창39:3~4), 바로 왕도 요셉의 지혜를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창41:38)라고 고백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이는 네가 나보다 의롭기 때문이라"(삼상24:17) 고백합니다. 믿음의 삶은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불신자의 마음을 흔드는 복음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가 섬기는 예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경공부, 소모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헌신,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 양보하는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여주는 창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은 지금 어떤 성경으로 읽히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왜곡된 성경은 아닌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살아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편지가 되었는가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성경, 보이는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인명 집사**

:: 한국 교회사 ::

# 평양 대부흥운동

절망에 빠진 조선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디로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은 1903년 말부터 1904년 말까지 송도, 서울, 제물포, 평양,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05년 9월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기독교 연합기관인 한국복음주의선교회 연합공의회 때문이었다. 전국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부흥회를 개최하였고 부흥운동이 전국에 있는 교회로 확산되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다. 장소가 협소해 여성들은 평양북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밖교회, 서문밖 지역의 사랑채에 모여 선교사의 아내들이 집회를 인도하였다. 사경회는 13일간 새벽기도회, 오전 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저녁 집회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진행 10일째가 되도록 성령충만이나 전도의 성과, 회개운동 등 사경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1월 14일 선교사들은 정오기도회를 열고 열심히 기도했다.

1월 14일 저녁, 결정적인 저녁기도회가 열렸다. 이길함 목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이어갔고, 15일 오전 2시까지 600명이 남아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길선주 장로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맡긴 거금 100달러를 횡령하였던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의 포문을 열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자 이어서 모든 회중이 울기 시작하였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마룻바닥을 두들기며 울며, 자신의 죄를 벗어 버리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다.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은 남성, 첩을 두 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성 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는 저런 고백들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고백했다.

길선주 장로는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절로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내며 마음에 찔리고 죄책감이 들었고, 설교를 마치려는 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리이까?"하며 대성통곡하였다.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의 역사는 평양 전역으로 퍼졌고, 교파를 초월하여 다른 교회로, 그리고 신학교로 확산되었고, 이 부흥의 불길은 곧 타지방으로 번져갔다.

그레이엄 리(이길함) 목사는 평안북도 선천군으로 내려갔고, 윌리엄 스왈론(소안론) 목사는 전라남도 광주군으로, 윌리엄 헌트(한위렴) 목사는 경상북도 대구부로, 길선주 장로는 평안북도 의주부와 한성부로 내려가 삽시간에 이 열기가 확산되었다. 또 평양신학교 학생들에 의해 부흥의 소식이 각지로 전파되었고, 부흥의 역사는 신의주, 선천 등 북한 지역과 대전, 공주, 대구, 목포 등 남한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어갔다.

사경회가 열리는 곳마다 공적인 회개운동이 계속되었다. 평양 부흥회 영향으로 한국교회의 수적인 성장과 내적인 신앙 성숙을 가져왔고,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 변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평양에서 일어난 강력한 회개와 영적 각성운동이 당시에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여성의 지위향상, 신분타파, 교육의 열기,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혁, 민족의식, 미신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 등, 부흥운동은 사회 전반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 시작하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술꾼이 술을 과감히 끊고, 도박꾼, 사기꾼 등 수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믿는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한국교회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 한반도에 영적 대부흥를 이루었고,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김종춘 목사**

:: 빛이 되리라 ::

#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때론 내 신앙의 바로미터이기도 하죠. 은혜가 메말라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사실 성도는 누구나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늘 설교 말씀으로 듣고, 성경에서도 수없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많은 경우에 감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건 없고 불평, 원망, 근심, 걱정만 가득해지죠. 그럼, 감사를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의 성령님께서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떠오르게 하시죠. 그리고 감사할 이유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실 조금만 시선을 돌리고 생각을 바꿔보면 감사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주위에 늘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또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기뻐하자, 감사하자'는 말씀들을 쓰거나 붙여 놓고, 수시로 보이게 하는 거죠. 눈에 띄면 감사가 생각나고 조금씩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인격의 척도요, 항암제이자 인생의 방부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우릴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함께 이뤄갑시다. 나중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세요.

**장명훈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